

전북사대부고 이전 · 신설 공동체 의견 모아

전주 에코시티로... 13일부터 학생 · 학부모 · 교직원 설명회, 27일 구성원 의견조사 실시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이하 사대부고)의 전주 에코시티로 이전 ·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7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덕진구 지역에 초 · 중학교는 계속 증가 중에 있으나, 고등학교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사대부고가 국립학교로서 교육부의 투자심사 통과가능성이 가장 높아 전북사대부고의 전주에코시티로 이전 · 신설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도교육청과 전북대학교는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내 고등학교부지로 국립인 전북사대부고의 이전과 관련해 학교 교육공동체에 제안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설명회를 열고 의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대규모 공동주택개발에 따라

전주시 인구 비중이 완산구에서 덕진구 지역으로 수평이동하고 있는데도 교육부의 고등학교설립 승인 통례로 인해 추가 설립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덕진구의 북부권인 송천 1~2동, 호송동 지역 등으로의 학생인구 출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일반고 설립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거주지 인근 고등학교에 배정받지 못하고 점차 원거리로 통학해야 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학생들의 통학문제와 신입생 배정시마다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실제 2021년도 현재 덕진구 지역에 소재한 학교수 비중을 살펴보면, 전주시 초 · 중 전체학교수 중 초등학교는 36교, 중학교는 19교씩이 각각 배치돼

있으나, 일반고 수는 전체학교수의 38.1%인 9개교에 그치고 있어 덕진구 지역 일반고등학교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 전주시 지역 일반고등학교 분포를 보면 국립 1교, 공립 6교, 사립 16교가 있어 공·사립 간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다. 국립학교 설립이나 이전은 교육부의 재정투자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공립 학교 신설이전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이를 통과하기가 매우 힘들고, 사립학교 이전은 법적 ·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전국적으로 심사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생 거주지 분포와 고등학교 위치 간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재배치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교육부 등과 협의해 왔다.

최근 에코시티가 포함된 4학년 거주 신입생이 증가하고 있는 국립고등학교인 전북사대부고를 에코시티 내 고등학교용지로 이전할 대상으로 검토, 전북사대부고가 소속돼 있는 전북대학교와도 사대부고의 이전 신설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 협의 결과 2021년 9월 3주에는 사대부고 이전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실무협의 TF를 구성, 이후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쳐 학교 관계자 대상 설명회 개최 일자와 의견조사(찬반 여론조사 등) 일정을 확정했다.

교육공동체 의견조사 대상은 학교 재학생, 학부모, 교직원으로 한정하고, 각 대상별 설명회를 거쳐 찬반투표를 진행, 투표 응답자 수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학교 신축 · 이전이 결정되

는 방식이다.

찬반투표는 오는 27일경 진행할 예정이며, 학교 신축 · 이전이 결정될 경우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이전 · 신설을 추진하게 된다.

전북대학교 관계자는 "전북대학교는 지역의 거점대학으로서 전북사대부고 이전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면 교육공동체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해 신축 · 이전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도교육청 행정과 관계자는 "전북사대부고 이전 · 신설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명회 등을 통해 이전 타당성을 적극 알리고, 또 교육공동체 의견조사가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사대부고는 본부 건물의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위해 정부로부터 약 2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다. /정은성 기자

그리스도의 신앙과 인류 보편적가치 기반

천주교 전주교구치명자성지 16일 세계평화의전당 개관식

전주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전당(담당 김영수 신부, 이하 평화의 전당)은 오는 16일 유랑검출에서 개관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축복미사는 전주교구장 김선태 주교 주례로 특별히 주한 교황대사 알프레드 슈에레비 대주교와 전주교구 사제단의 공동 집전으로 봉헌된다. 사회적으로 리무기로 인원 제한이 있어 관계자만 참석할 가운데 유튜브 채널 '천주교 전주교구'(<https://www.youtube.com/c/>)를 통해 생중계된다.

평화의 전당은 2015년 10월 문화관광체육부 국고보조금사업으로 확정된 후, 2017년 기본계획 수립,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설계유역을 진행했다. 이후 2019년 9월 17일 착공해 지난 5월 준공했다.

사업배경은 치명자성지는 원도심공원지구에 자리한 천혜의 휴양공간이자 천주교 순교자들의 영적 자원이 풍부하고, 인근 한옥마을의 문화자원과 연계된 성지 조성 및 통합적 문화산업 육성을 통해 종교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자원 구축의 모범사례다.

사업목적은 물질적 풍요와 사회적 발전의 영향으로 영적인 삶의 가치가 등한시되는 현실에서 그리스도 신앙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개인, 가정, 사회의 회복과 평화를 이루는 문화공간 조성이다.

연면적 9,033㎡의 지상 3층 건물로 피정과 연수를 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이뤄졌다.

한편 전주 치명자성지는 신유 박해 순교박자 유랑검 가족 유해가 인치된 전주교구의 대표성지 중 하나다. /정은성 기자



호원대학교는 7일 (주)익산하이테크 사무실에서 발전기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장교 복무 젊은이들의 든든한 힘”

익산하이테크, 호원대에 발전기금 전달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7일 (주)익산하이테크 사무실에서 발전기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최귀남 회장, 이병렬 고문과 강희성 총장을 대신해 김용환 학과장을 비롯한 김성섭 · 김세연 교수가 참석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귀남 회장은 "호원대학교 군사과 학기기술학과에 전무화를 기탁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대한민국 장교로서 복무할 호원대 청년들의 든든한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김용환 학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전기홍 대표의 진심어린 기부에 감사드리며, 우리 대학 청년들의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한국인 최초 위트비 어워드 수상자 선정

전북대 나창은 교수... 현대 수소차 연료전지스택 가스켓 등 특허 보유

전북대학교는 나창은 교수(고분자나노공학과)가 미국 화학회(ACS Rubber Division)의 2022년 'George Stafford Whitty Award' (이하 Whitty Award)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한국인으로 이 상을 수상한 것은 나 교수가 처음이다.

이 상은 화학과 고분자과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업적을 남긴 위트비(George Stafford Whitty) 교수를 기리기 위해 미국 Cabot Corporation사의 기금으로 1987년부터 매년 1명을 선정해 수상해 오고 있다. 위트비 교수는 2차 세계대전 중 군용 타이어 등에 사용하는 천연고무를 대체할 합성고무 개발에 기여했고, 미국의 고분자 교육 프로그램을 창시한 인물이다.

이 상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매년 10월 인론을 통해 발표하고, 이듬해 4월 시상식이 진행된다. 나 교수는

2018년부터 수상 후보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내린 중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르면 나 교수는 1995년 미국 Akron대학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타이어연구소에서 10여 년의 산업체 연구경험을 쌓았고, 1999년 전북대에 부임한 이후 고분자나노복합소재 및 고무탄성기반 신기술 응용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과 BK21 사업 등을 통해 국내외 전문 학술지에 총 230여편, 국제학술회의 및 연구기관 초청강연 약 50여회를 포함 총 450여회의 논

문발표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이중 현대 수소차(NEXO) 연료전지스택 가스켓 등 10여 건의 국내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80여 명의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배출했고, 2019년 한국고무학회장, 2020년 한국고분자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또 지난 15년 동안 현대자동차, 한국타이어, 넥센타이어 등 관련 산업을 위한 고분자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해 호평을 받았다.

한편 나 교수는 내년 4월 26~28일까지 미국 콜리블랜드에서 시상식과 함께 수상자 기념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나 교수는 "고분자 관련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을 받게 돼 매우 기쁘다"며 "제상을 바랄 수 있는 힘을 지닌 연구자로 더욱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은성 기자



Akron대학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타이어연구소에서 10여 년의 산업체 연구경험을 쌓았고, 1999년 전북대에 부임한 이후 고분자나노복합소재 및 고무탄성기반 신기술 응용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우리학교에 자연놀이터 생기네?’

전주자연초, 학교생태체험학습장 공모 선정

전주자연초등학교(교장 신순자)가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교생태체험학습장 공모에 선정, 학부모 · 학생 · 교직원 등 설계지원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에 2020년 3월 개교한 50학급 대규모 학교로, 증마다 교실과 연결된 테라스가 있어 치유정원을 조성하고 텃밭 · 허브꽃밭 · 나무그늘 · 벽면 널찍 식물로 구성된 생태관찰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먼저 7일 전북대학교 최정란 교수와 함께 원예치료가 무엇인지, 정원을 꾸미기에 어떤 장소가 적합한지를 알아보고, 10월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 치

유정원을 방문해 숲의 편안함을 느끼며 가상 설계도 그리기 수업을 진행한다.

또한 10월 중순부터 숲터 전정일 교수가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숲이 주는 이로움, 계절에 맞는 식물, 허브를 통한 정서치료 등 생태교육을 실시한다.

전주자연초등학교 관계자는 "치유정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공간설계에 참여한 학생 · 학부모 · 교직원의 시민 의식을 형성시키고, 학생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원터 제공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학부모 원예치료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조기환 교수)이 7일 남원에서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연 가운데 (주)전북대 기술지주회사 지회사 7호인 (주)휴먼피트니스랩과 1억원의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역 창업기업 투자 유치 조력자’

전북대 산학협력단, 10곳 대상 투자 유치 설명회 지술자주 · 학생 창업기업 등에 4억원 투자 견인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조기환 교수)이 7일 남원에서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고, 모두 4억원의 투자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유치 설명회는 전북지역 10개 창업기업과 투자전문회사인 스노우 발벤처스, 씨엔벤처파트너스, 리카인베스트먼트, 특어랩인 자원 등이 참여했다.

설명회에서 창업기업들은 각 기업에 대한 비전과 경영실적 등을 소개하고, 투자 설명회 실무 및 방법 방법에 대한 특강도 진행했다.

또한 성공적인 투자를 받기 위해 투자자와의 개별 멘토링을 진행했음뿐 아니라 기술보증기금, 전북연구개발특구, (재)전북테크노파크가 참가해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와 별도

멘토링 등이 이어졌다.

특히 이를 통해 최근 각광받고 있는 메타버스 AI, 홀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주)전북대 기술지주회사 지회사 7호인 (주)휴먼피트니스랩이 1억 원의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전북대 학생창업기업인 수우수와 (주)플라스 바이오 등도 3억 원의 투자 확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조기환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투자 설명회를 시작으로 전북지역 내 투자 인프라를 활성화 해 미래 유니콘 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며 "전북 경제를 이끄는 스타 창업기를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완주 Wee센터, 12~15일 학생 · 학부모 대상 야간상담

완주교육지원청 위(wee)센터는 관내 학부모 및 학생을 대상으로 야간상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2~15일 평일 오후4시에서 9시까지 운영되는 야간상담은 사전 전화 예약을 통해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및 사전 건강상태 점검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위(wee)센터 홈페이지 사이버상담실, 이메일(wjwee365@bedu.kr), zoom을 통한 온라인 실시간 상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다.

장미옥 담당관은 "달빛 상담실이란 주체처럼 달이 은은한 빛으로 감금함을 밝히듯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고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